

07

식물에게는 안식을, 사람에게는 휴식을

거창군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사업 : 금원산생태수목원 조성 현황

당신은 산에 왜 오르는가. 산이 거기 있기에? 번뇌를 잊으려고? 산은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을 품는다. 도시의 일상에 지친 사람들, 도시를 잊고 싶어 산을 찾아 떠난다. 산은 바람으로든, 바위로든, 나무로든 위안과 위로가 되어준다. 그래서 산을 온 것만으로도 다시 도시로 돌아갈 용기를 얻는다. 하지만 산에 기대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산은 자연을 잃어갔다. 급격히 늙어갔다. 과연 사람과 자연, 그들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금원산생태수목원은 자연과 사람 그 공존의 법칙에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생식물 집단을 보전하기에 최적지인 지리·덕유산 권역의 해발 750~900m에 국내 최고 고산 수목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본격적인 수목원 사업 시공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생태수목원이 완성되었고, 2010년 12월, 산림청에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되는 쾌거를 이뤘다. 국내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현재 금원산생태수목원은 산림자원 보전은 물론, 주변 명승지와 연계한 관광자원개발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공익적, 경제적 기능을 두루 갖추며 국내외 최고의 수목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금원산생태수목원. 분명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단순히 막연한 꿈이 아닌 그 꿈이 실현 가능한 이유에 대해 들어보자.



금원산생태수목원 알파인 온실



금원산

최단기간, 최소 자금으로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산악국가이자, 전 국토의 60%가 임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산림자원을 육성·보호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차원에서, 관광자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하지만 수목원은 조성 시, 부지확보와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갖춰야 한다는 점 외에도 식물종이 1,000종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제약이 많다. 대개의 수목원들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지 외 식물들을 수집, 종(種) 개수를 맞춘다. 이 경우, 사람처럼 식물 역시 새로운 터전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끝내 제 모습 한번 갖춰보지 못하고 죽는 식물들이 많다.

금원산생태수목원은 철저한 주변 자연 조사에 들어갔다. 일단 금원산 내에 보유한 식물만 총 561종이었다. 국내 최대 고산지대에 수목원이 조성되는 만큼, 이 지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을 더 선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금원산생태수목원은 지리산·덕유산 권내 위치하고 있다는 유리한 점을 이용, 현지 내 식물 보전이란 초강수를 선택했다. 곧 주변 지역의 식물 종자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식물 보유 종수는 총 1,124종으로 늘어났다. 현지 내 식물을 활용하니 적응력이 빠른 덕분에 본격적인 사업 시공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수목원 사업이 완료되었다. 또한 수목원 총구획 면적이 200ha가 되면 수목원 조성 사업비만 1,000억 이상이 들기 십상인데, 주변 환경을 잘 이용한 덕분에 사업비를 10분의 1이나 절감시켰다. 최단기간, 최소 자금으로 국내 최고의 고산 수목원이 조성된 셈이다. 경상남도수목원에 이은 경상남도의 두 번째 수목원, 금원산생태수목원의 시작은 이렇게 알뜰했다.

정통 산림주자의 일편단심 수목원 사랑

고산 지역일수록 수목원 조성에 어려움이 많다. 우선 종(種) 다양성이 떨어지고, 통신시설 등의 설비 작업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산지대에,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 고산지대에 수목원을 조성한 것은, 그만큼 보전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목원하면 쉬면서 보는 곳, 즉 전시 기능이 강한 편이지만 이곳은 보전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다. 자연 친화적인 수목원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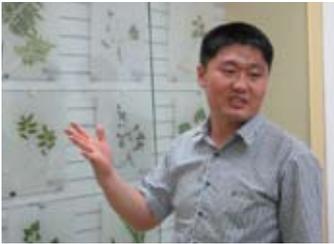
| 년차별 추진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0,300	2,000	2,000	1,714	1,600	1,506	1,480
광특	5,150	1,000	1,000	857	800	753	740
도비	5,150	1,000	1,000	857	800	753	740



경상남도 산림환경 연구원 김종익 소장



주정욱 주무관

이 덕분. 사실 여기에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이자 금원산수목원 관리소장인 김종익 소장의 역할이 한 몫을 톡톡히 해냈다. 금원산생태수목원 사업 목표 설정 때부터 지금까지 수목원을 지휘해온 김 소장은 이 분야에선 베테랑 중의 베테랑. 경상남도 제 1호 수목원인 '경상남도수목원'도 김 소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바, 사업상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금원산생태수목원의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년간 축적한 그만의 노하우로 각 식물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자생할 수 있는지를 흰히 꿰뚫고 있었다. 그러니 식물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이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터를 손수 마련해주는 것도 그의 임무 중 하나. 수목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지금도, 자나 깨나 오로지 수목원 생각뿐이라는 김 소장은, 수목원 자체를 자신의 살림처럼 생각하며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은 그 즉시 자신이 직접 실천해 본다고 한다. 그야말로 그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고스란히 수목원에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신뢰감으로 호흡하고 사명감으로 뛰고

김 소장이 전문적인 지식을 무기삼아 수목원의 전체 그림을 그릴 때, 그의 곁에는 김 소장이 그려놓은 그림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는 이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2007년부터 현재까지 5년 간 실무자로서 그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했던 경상남도 녹색산림과의 주정욱 주무관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수목원 조성 시부터 김 소장과의 호흡을 맞췄던 주정욱 주무관은, 김 소장이 전문적인 소견을 내놓으면, 발빠르게 그것이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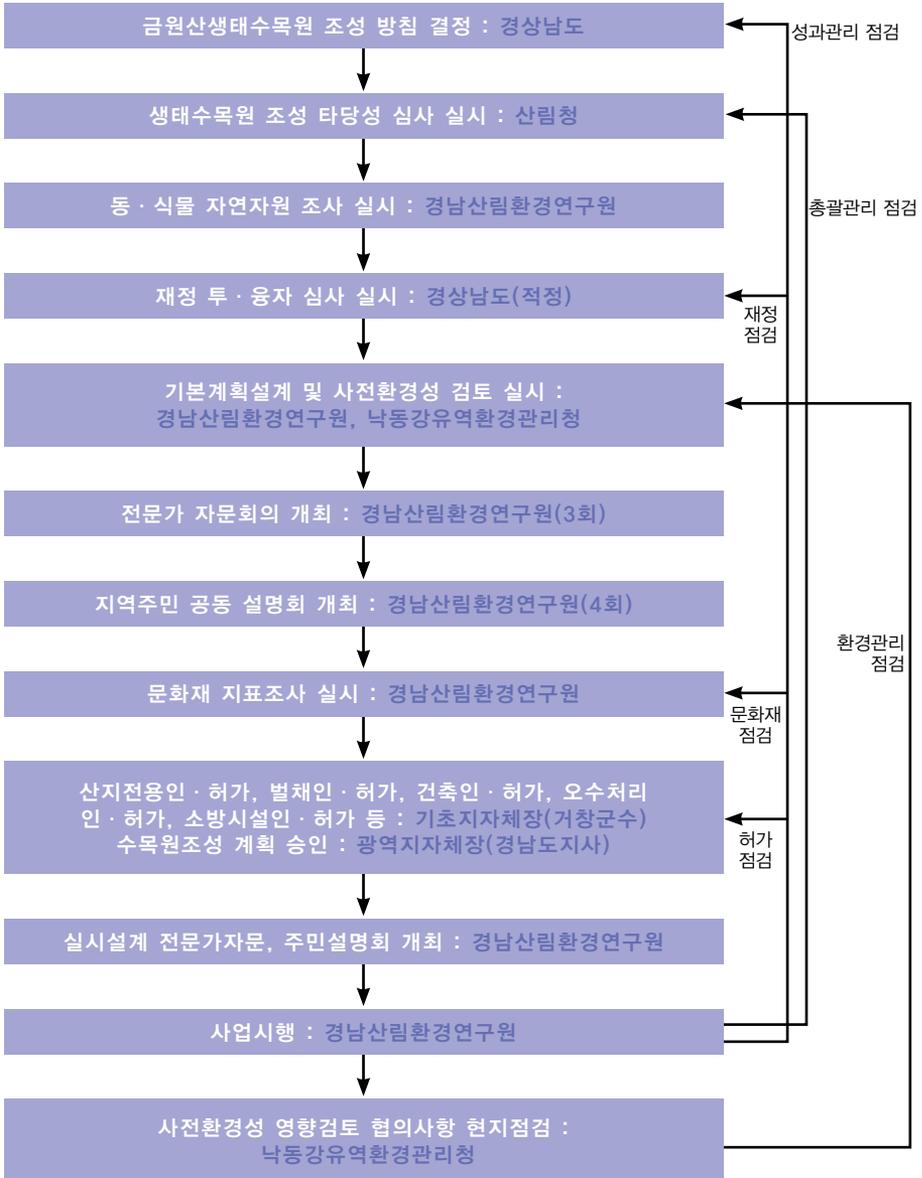
서로에 대한 신뢰감과 믿음이 더 두터워졌다.

두 사람의 이러한 호흡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금원산생태수목원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였던 시절에 가장 빛을 발했다. 2005년에 확보했던 예산이 환경성 검토 등의 법적 이행 절차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워지면서 한해 40억 정도의 예산이 지연된 일이 있었다. 그 당시 김 소장과 주정욱 주무관은 기획예산처로부터 2007년 예산 신청 시까지 당초 이월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수목원 사업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 이들은 직접 기획재정부며, 조달청이며 담당자를 찾아가 사업 미집행에 따른 사유를 설명하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사실 수목원 조성이 취소된다고 해도, 그들 개인적으로는 문제 될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건, 확신에 찬 사명감 때문이었다. 수목원이 완성되면, 거창의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크나큰 환경문화 유산이 될 것이란 확신. 이러한 확신은 관련 부서나 도급자들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추도록 이끌었으며, 최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연과 주민을 먼저 생각한 공약의 실천화

대한민국에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반기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거세기 마련이다. 자연은 영원한 창조자, 인간은 영원한 파괴자란 말이 있듯이 수목원이 설립되면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민가에 폐수 등이 흘러나와 환경을 오염시켜서 지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이에 수목원 관계자들은 4번의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 설득 작업에 나섰다.

| 연계 · 협력체계 |



역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수질 오염이었다. 계곡에서 흘러 나오는 물을 마시는 지역 주민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수목원 관계자들은 약속했다. “수세식 화장실 아닌, 발효식 화장실로 설계하겠다.”, “정화 능력이 탁월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 “수생식물원은 만들어 오염물질을 재정화 시키겠다.” 약속은 그대로 이행되었다. 화장실은 푸세식, 발효식으로 최대한 냄새 나지 않게 지어졌고, 건물을 지을 때도 최신식 정화 시설을 설치, 깨끗한 물만이 방류토록 설계했다. 또한 수생 식물원 조성으로, 수목원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 및 오염 처리수를 재처리하는데 활용했다.

수질오염 다음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려한 것은, 바로 관광객 차량 출입이 많아질수록 마을 환경은 그만큼 오염될 것이란 점이었다. 이때 수목원이 내세운 것은 지역주민 소득 증대! 금원산 내 풍부한 식·약용 임산자원에 대한 생산기술 및 식품개발로 지역 특산물을 브랜드화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타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질수록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통로가 다양화, 특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경남으로서는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민의 소득원이 마땅치 않던 참나에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이었다. 또한 수목원에는 여러 노동력이 필요한 터,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자연은 지키고, 관람객 만족도는 높이고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 성공한 수목원의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어떻게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범 사례가 되는 최고의 수목원을 조성하느냐는 거였다. 금원산생태수목원은 조경 공사를 먼저 시작했다. 자연 생태 숲의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



수목원 야외 화장실



수생 식물원



관람데크



관찰로



관람데크



방문자센터



희귀자생식물원



방문자센터



희귀특산식물원



희귀특산식물원



방문자센터



희귀특산식물원

함이었다. 건물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이질감이 없도록 지역에서 생산된 화강석을 사용하여 건립하였다. 또한 식물 보호 차원에서 목재 데크로 동선을 유도하였다. 식물을 존치·보전함은 물론, 관람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 시스템이었다.

한편, 모르고 저지른 일보다 알고 저지른 일이 더 나쁘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자연에 통하지 않는다. 그것이 왜 나쁘다는 인식이 없기에 우리는 자연을 훼손시키고 담아 가려고 한다. 이에 다양한 체험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 부각시킨 것이 금원산생태수목원이었다. 고산습지원, 희귀자생식물원, 문학식물원 등 아름다운 숲과 테마가 있는 전시시설 15개소와 숲문화 교육장 등을 만들어 자연학습 교육을 비롯한 생태체험이 가능토록 한 것. 이는 식물 보존 효과와 함께 풍부한 볼거리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지만, 방문객 스스로 자연을 보전시키는데 “너”가 아닌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시키기 위한 학습 공간이기도 하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때

미인은 멀리서 봐야 한다고 하지만 산은 그 속에 들어가 봐야 그 아름다움을 더 잘 알 수 있는 법이다. 금원산은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일단 금원산에서 기백산으로 이어지는 높은 능선마루에서 보는 경치가 압권이다. 북으로는 덕유산, 서쪽으로는 거망산에서 황석산 능선, 동쪽으로는 수도산에서 가야산 능선, 남쪽으로는 지리산의 풍경이 오밀조밀하게 들어서 있다. 또한 2.5km에 달하는 자연휴양림 내 유안청 계곡은 예전 선비들이 홍진(紅塵)을 피해 즐겨 찾았을 만큼 풍광이 빼어난 골짜기다. 휴양림 외에도 거창의 명소인 수승대, 넓은 바위가 많은 남덕유산 자락의 월성계곡, 돌담길이

예쁜 황산 고가 마을, 구연서원과 덕천서원 등 둘러볼 곳이 많다. 여기에 매년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리면서 사람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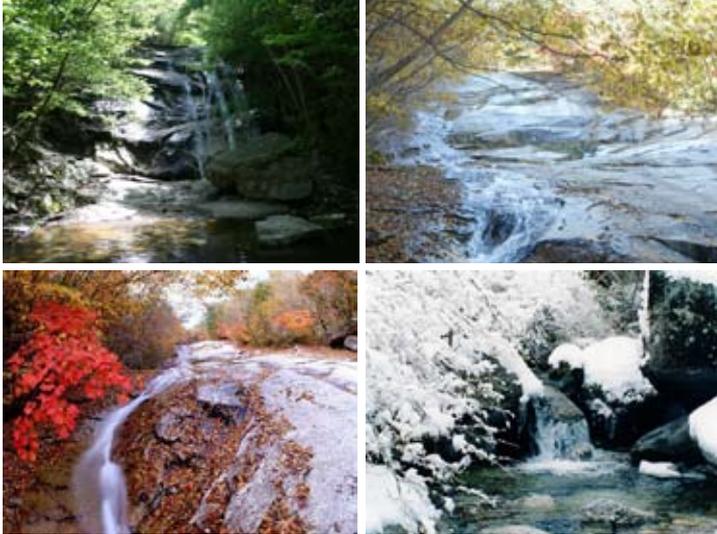
금원산 내 조성된 금원산생태수목원은 그야말로 관광 인프라가 가장 뛰어난 명당 자리에 자리를 잡은 셈이었다.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도 무궁무진.

현재, 수목원은 이러한 주변 경관과 광활한 산림을 적극 활용, 산림 테라피 시설이나 산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해 다양하고 다각적인 서비스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계획한 바대로만 된다면, 금원산생태수목원은 자연을 되살리는 인큐베이터가 되는 동시에 사람들의 몸과 마음까지 치유하는 종합적인 산림 메카가 되는 것이다.

다가올 종(種)전쟁시대를 대비한다

지구촌에는 매일 136종의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있다. 20~30년 내에 지구 전체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도 많다. 때문에 생물종 다양성의 보존은 자연보호, 자원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각국이 생물자산 보호와 양성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영토 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보호책 마련에 나서는 등 생물자산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멸종되어 버린 종(種)이 미래의 유용한 약품이나 재료로 쓰인다고 한다면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산 털개 회나무 종자가 미국으로 건너가 '미스 김 라일락'이란 이름으로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홍도



비비추 역시 미국인의 품종 개량을 거쳐 '잉거아이 비비추'란 이름으로 해외에 보급됐다. 이렇듯 한 나라의 생물자원이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됨에 따라 종(種)의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고산성 식물유전자원으로 조성되어진 금원산생태수목원은 국가적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금원산생태수목원은 산림청과 연계해서 종(種) 데이터 관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국내 종(種) 데이터에 기록되지 않은 식물에서 약용 원료를 발견할 경우, 자체 개발을 허가받을 수 없기 때문. 그래서 금원산생태수목원은 식물을 보존하고 이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착실하게 진행 중이다. 독일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 원료를 추출해 국가적으로 큰 이득을 본 것처럼, 언젠가는 이곳 수목원에서 누군가가 아스피린을 뛰어넘는 약용 원료를 발견할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